

# 무주군, 마을로 승부한다

## 입구 경관개선·담장벽화 등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박차'

!무주군이 마을 경쟁력을 키워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 해 군이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깨끗한 마을 만들기 경관조성과 △생생마을 만들기, △관광객 맞춤형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회생지원, △농촌현장 프로그램 등이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경관조성(마을당 1천만 원 지원)과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마을당 5백만 원 지원)은 마을입구 경관개선, 마을담장벽화, 소규모 썬지공원 조성, 꽃길 조성, 마을취약지역 정화, 마을공동체 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회생지원 사업은

기존에 마을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농교류 기반시설과 체험·소득시설의 신축 또는 개·보수, 환경개선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마을 당 2천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대비한 움직임도 눈에 띈다. 무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객 맞춤형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한 관련 프로그램과 음식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 별로 1억에서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마을과 도농교류 활성화의 지가 높은 마을을 지원하게 된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농촌현장 포럼도 진행한다. 전문가를 통해 4차수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정책을 비롯한 △마을자원에 대한 이해와 △우수마을 현장 견학 등이 병행된다. 무주군 마을만들기 사업소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은 "올 한 해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 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 마을로 가는 축제를 활성화시켜 농가 소득을 기우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을이 강해져야 무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확산돼 너도나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일 관계자 및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발대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지속되고 있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설 연휴기간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불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2017년 불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산림전문예비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 산림보호지원단이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일 회의실에서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 및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내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방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금번 발대식을 통해 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전원이 합심하여 산불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산불재해와 실연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발대식과 병행하여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앞으로 "국민이 국유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3.0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수정란이식 '우량한우 송아지' 생산

##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연계 한우 암·수 동시 개량 시범사업

진안군은 1일 경쟁력 있는 우량혈통 한우 대량생산의 길이 트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우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연계하여 수정란 이식에 의한 우량한우 송아지 생산기술이 축산농가 보급단계로 접어들면서 가능해졌다. 지난달 27일 진안군 동향면 능글리 이우식(57)씨의 한우농장에서 처음으로 우량 한우 송아지가 태어났으며 앞으로 4농가에서 22마리의 송아지가 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이 분만 한 송아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우수한 공란우에서 수정란을 이식하여 생산된 송아지로 우량혈통을 이어받아 성장률과 육질이 탁월하다. 올해에도 사업비 1,500만 원을 확보하고 수란우 40두를 선발하여 한우개량사업소 암소개량센터에서 생산한 고능력 한우 수정란을 이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송아



지의 개체별 관리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한우개량은 인공수정을 이용한 수컷의 형질만 이용하여 개량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정란이식 기술을 이용한 암·수 전체형질을 동시에 개량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고능력 송아지 생산의 길이 열렸다. 군 관계자는 "진안고원 한우브랜드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 사양 방식에서 유전·혈통 중심의 사양 방식으로 옮겨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며 "우량종축을 밑으로 확보하여 고품질 쇠고기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수정란이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축산경영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

## 축사시설 현대화·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17일까지 신청

완주군은 축산인들의 축산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경영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1일 군에 따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연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으로 한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엘크, 양, 흑염소, 말, 메추리, 토끼 등을 사육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또는 법인이다.

지원형태는 보조+융자사업(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과 이차보전 융자사업(융자 80%, 자부담 20%)으로,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도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 통해 무허가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관내 조사료 생산량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수확 제조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융자 80%, 자부담 20%)과 조사료 면적을 확보한 경영체(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가 조사료 수확 제조장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일리지 및 건조초를 제조해 축산

농가까지 운송하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계약 체결(자가소비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을 맺은 경종농가와 계약해 신청이 가능하나, 품질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밖에 풀사료 재배 및 보존지원 활용사업(보조 30%, 자부담 70%)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와 볏짚 비닐 등을 지원해준다. 사료작물 종자 신청은 추파(4월)와 춘파(전년도 9~10월)로 나누어 전주김제원주축협(063-240-2832), 한국낙농육우협회(02-588-7055) 및 완주군 농업기술센터(063-290-3302)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 '호응'

진안군은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오일을 새 오일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많은 농업인들이 트랙터, 콤팩트, 경운기 등에서 배출되는 폐오일을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군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2,150 1의

새 오일을 구입하여 면세유 대장에 근거하여 교환사업을 벌였으며, 올해에는 군비 6,9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 5,000 1를 구입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농업기술센터까지 내방이 어려운 농기계 보유 농가를 위해 읍·면 단위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해주며, 폐유 수거통을 제작하여 설치할 완료했다. 이항로 군수는 "농기계 폐오일 교환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폐오일 방치나 토양·수질 오염을 막아 청정진안 맑은 물 용당호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청렴 해피콜 제도' 운영

## 민원인에 업무처리 설문

완주군은 각종 민원 처리 사후 점검과 청렴도 취약분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청렴(고충민원) 해피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렴해피콜 제도는 완주군 기획감사실 법무감사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 공정성, 기타 불평사항 등 6개 항목의 설문을 조사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불친절이나 부조리에 대한 군민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시정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이다. 대상 민원은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사업, 인·허가 업무, 기타 민원 취약분야

등이 해당된다. 군은 청렴해피콜 측정 결과를 매월 조사한 후,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사안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바로 개선기로 했다. 하지만 부조리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감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패발생의 근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청렴해피콜은 군민과 소통함과 동시에 민원처리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한 뒤 다시 군민에게 피드백하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어 "청렴 해피콜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민원행정을 군민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 노인복지관 개강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관장 정규봉)은 1일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의원, 관내 유관기관·단체장을 비롯한 복지관이용어르신,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진안중앙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자치회 회장 이·취임식 및 이용자 대표선서가 이어졌으며, 2017년 강사 소개와 직원 소개를 통해 2017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정규봉 관장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노인복지관에서는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웃음치료, 원예치료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또한 색소폰 교실 추가 개설을 비롯해 노래교실, 기타교실, 요가교실, 컴퓨터교실 등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 26개 프로그램이 개강하여 노인 여가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방범CCTV 설치 추진

장수군이 군민의 소중한 재산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2017년 2월에 차량관독 CCTV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총 1억3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차량관독 CCTV 1개소 2대와 마을자위 방범 CCTV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차량관독 CCTV는 국도 및 지방도 주요 거점도로에 설치해, 도난차량, 긴급사건 차량, 자살우려자 차량 등을 추적 및 검거에 활용되며, 마을입구·안길에 설치할 마을자위방범 CCTV는 빈집털이, 농축산물 절도 등 각종 범죄 예방 및 신속한 검거에 활용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월례조회 개최

무주군은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3백여 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월례조회를 가졌다. 이날 무주군 공직자들은 새롭게 제작된 무주군 홍보 동영상 시청했으며 행복추진 미래연구소 정찬용 소장이 "영화로 보는 미래설계"를 주제로 진행하는 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2월은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때로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찾아 지원하는데 마음을 써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AI예랑과 재정 조기집행, 추진 중인 사업들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회를 통해 무주가 태권도성지로서 제대로 알려지고 브랜드 가치도 더불어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뛰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진안군은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의 경우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시 1인당 5,000원을 지원하고, 숙박 관광(1박당)의 경우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수화여행 단 20인 이상 시 1인당 10,000원을 지원한다. 단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마이산 벚꽃성수기(4월 10일부터 30일 사이)에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은 인센티브 지원에서 제외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장수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이용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개 단지 당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0개 단지에 1억8,5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2개 단지 4,0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은 관련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사업을 명확히 했으며, 추진일정으로는 오는 10월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3월중 착공,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행복장수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473)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